

---

# 평북 운산 용호동 고구려 고분군 검토

강 현 숙\*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의 용호동 고분군 조사
    - 1. 조사 경위
    - 2. 조사 내용
    - 3. 고적 지정과 그 이후
  - III. 용호동 고분 검토
    - 1. 고분 구조
    - 2. 용호동 1호분 출토유물
    - 3. 고분의 연대
    - 4. 고분군 조영의 의미
  - IV. 맺음말
- 

---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 국문요약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3기의 대형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구려 국내도성과 평양도성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로의 경유지에 자리한다. 이 글에서는 운산 용호동 고분군이 고구려 중앙와 지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는 판단 하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사된 용호동 고분에 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용호동 고분군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용호동 1호분과 3호분은 목실계단적석총이며 용호동 2호분은 석실봉토분으로, 고분의 조성 시기를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 사이로 비정하였다. 용호동 고분군이 조성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사이의 기간은 고구려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영역 확장에 성공을 거듭하는 시기이자 국내도성에서 평양으로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성된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내륙 교통로상에 조성된 초대형분이라는 점에서 운산 용호동 일대가 국내도성과 평양도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지방의 주요 거점지였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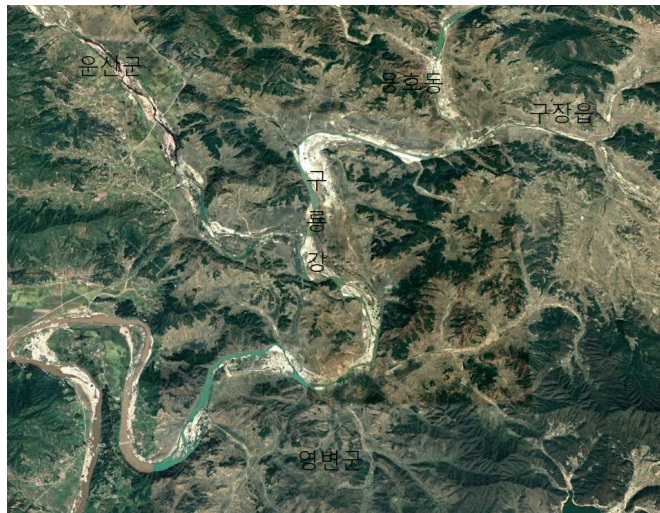
### Ⅰ 주제어 Ⅰ

운산 용호동 고분, 적석총, 석실봉토분, 고구려 고분

# I. 머리말

평안북도 운산군은 청천강유역에 자리한다. 청천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영변, 박천이 이어지고 여기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압록강 하구에 이르러 연안항로를 따라 중국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영변에서 개천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면 평양에 이른다. 반대로 청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계, 초산, 만포에 이르고 여기서 압록강을 건너면 국내 도성이 자리한 중국 길림성 집안시이다. 따라서 운산 일대는 고구려 국내 도성과 평양 도성을 연결해주는 내륙 교통로 상 주요한 경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박천과 초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운산을 경유한다.

용호동은 운산군의 남쪽에 위치하며, 용호동의 서쪽은 구장군 하장리와 접하며, 남쪽은 영변군과 접한다. 1914년 행정구역을 洞制로 개편하면서 영변군 남신현면 상장리와 통합되어서 운산군 동신면 용호동이 되었다. 용호동은 해발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로 이루어져서 지세는 북부와 북서부가 높고, 남부와 남동부로 갈수록 낮아진다. 용호동의 남쪽으로는 구룡강이 영변을 거쳐 청천강으로 들어간다<지도 1>. 청천강은 평안남도과 북도의 경계 역할을 하여서 마치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북한이 나뉘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다.



지도 1. 운산 용호동 위치와 지형도

용호동에서는 적석총 두 기와 봉토석실분 한 기 등 세 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고구려에서 적석총과 봉토분은 4, 5세기대에 병존하였다. 용호동 고분군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용호동 고분군은 4, 5세기대 고구려의 중앙과 지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며, 특히 왕도가 아닌 지방에 자리한 초대형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함경도 내륙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고구려 고분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운산 용호동 고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용호동 고분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고분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다. 소개된 용호동 고분 자료는 1917년도 조사된 내용과 사진 몇 장이 알려졌고(朝鮮總督府 1918), 1929년 발간된 『高句麗時代之遺蹟』에서도 설명 없이 사진과 도면만이 소개되었다(朝鮮總督府 1929).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사진이 알려졌지만 이는 1917년도 고적조사보고서와 『高句麗時代之遺蹟』에 실린 것과 대동소이하여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용호동 고분을 조사하였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일기(이하 ‘세키노 컬렉션’)에서도 용호동 1호분에 대한 소략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용호동 고분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인 것은 일제강점기의 고고학 조사가 학술적 목적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고구려 유적의 조사는 두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은 통구 분지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양안지역으로, 이 지역은 만주 진출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 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지역은 서북한 일대로 이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漢郡治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지만, 서북한 일대에서의 조사로 각지의 고구려 벽화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고구려 도성인 환인과 집안 일대의 초대형적석총과 벽화분, 평양과 서북한 일대의 초대형 봉토분과 벽화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 고분 조사와 연구 모두 왕도 중심의 편향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왕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왕도였던 국내와 평양 지역을 연결해 주는 교통로 상의 주요 경유지인 곳에서의 대형분은 고구려 중앙과 지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산 용호동 고분군을 검토하고자 하는 바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에 글에서는 먼저, 용호동 고분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기록을 정리하고,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소개하고, 용호동 고분이 가지는 고고학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출간된 관련 보고서와 공문서 및 유리건판 사진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고, 비교함으로써 용호동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용호동 고분



군과 대비될 수 있는 고구려 고분을 비교함으로써 용호동 고분군의 조영 시기와 용호동 고분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일제강점기의 운산 용호동 고분 조사

### 1. 조사 경위

일찍부터 한반도 곳곳에서 고적을 조사하고 및 유물을 수집하였던 일제는 1916년 고적 조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1916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이 그것으로, 그에 따라 ‘고적조사위원회 규정’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적조사위원회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인 1916년 4월 26일 임명되었고, 고적조사위원 중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은 이전부터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였던 인물이다<sup>1)</sup>.

고적조사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고적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1916년도에는 漢郡治 지역과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및 有史前 유적, 유물의 조사를 계획하였다. 한군치 및 고구려시대의 유적과 해당 지역의 선사유적 조사는 한반도 최초의 나라인 ‘조선(고조선)’이 평양에 도읍을 했다는 전설,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기록 및 중국 魏書, 晉書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시기는 고조선을 포함하여 삼한, 북부여 및 삼국에 중점을 두었고, 조사 대상지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충청북도로 정하였다. 아울러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적도 부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고구려시대 유적 조사의 일환으로서 1916년도에 계획되었다. 1916년도 조사 계획에 의하면 평안북도의 조사 대상지로는 정주군 광산면 고분 10기, 운산군 고분 10기, 구성군 고분 10기, 영변군 신현면 고분 10기, 영변군 동신면 고분 10기<sup>2)</sup>이다. 조

1) 이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에 의해 확인된 조사 참여자의 약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자료실에 잘 소개되어있다([https://www.museum.go.kr/dryplate/material\\_view.do](https://www.museum.go.kr/dryplate/material_view.do)).

2) 옛 지명에 의하면 영변군은 평안북도 소재지로, 1896년 영변군 내의 면으로는 읍내면, 팔원면, 소림면, 연산면, 태평면, 용산면, 고성면, 남송면, 독산면, 봉산면, 백령면, 북신현면, 남신현면, 오리면, 어룡면 등 15개의 면이 있었고, 1914년도 행정구역 개편 시 용산면과 남신현면은 분리 편입되면서 남신현면 상장리가 운산군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영변군 동신면은 확인되지 않고, 용호동은 동신면에 속한 것으로 미루어 영변군 동신면 고분은 용호동 고분의 오기로 추정된다. 실제 영변군 동신면 고분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기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1916년도 조사계획을 세우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는 고분을 발굴하여, 관·곽의 부장품을 수집하고, 조사 진행에 따라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주, 구성군, 영변군은 구로이타가 담당하였고<sup>3)</sup>, 운산군은 세키노가 담당하였다. 세키노는 19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운산군 일대 조사 후 내륙으로 올라가는 도중 위원 덕암동고분과 만호동 고분을 조사하고 압록강 유역의 밀산 사장리 고분을 조사한 후 압록강을 건너 유수림자 일대의 고분 조사 하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초산 고분군과 집안 통구분지 일대를 조사하였다.

당초의 조사 계획과는 달리 운산 용호동 고분 조사는 1917년 세키노와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에 의해 진행되었다. 야쓰이는 1917년 8월 25일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세키노의 조수로서 고적조사에 참여하여 주로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용호동 고분 조사에서는 제도를 담당하는 촉탁직으로서 측량 제도원 3명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다.

1917년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용호동 고분에는 세키노보다 야쓰이가 먼저 도착하였다. 야쓰이는 측량 제도원 3명과 함께 1917년 5월 7일 경성을 출발하여 황해도, 평안남도의 유적을 조사한 후 운산으로 갔다. 언제 운산에 도착했는지는 추적되지 않는다. 세키노는 6월 11일 경성을 출발하여 바로 다음날 운산에 도착하여, 미리 도착해있던 야쓰이 일행과 함께 동신면 용호동 고분, 제평동 고분, 위연면 극성동의 만리성<sup>4)</sup>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17년도 조사한 보고서와는 달리 실제 ‘세키노 컬렉션’(정인성 2009: p.58-59)에서도 순천 선암면 고분과 운산 용호동 고분, 위원하유역과 유수림자 고분 조사와 기타 여행 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계획한 일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사진 1>.

세키노의 일기인 ‘세키노 컬렉션’에는 6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조사한 용호동 1호분에 대한 기록과 20일 위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온정리에서 숙박한 기록만 있다(정인성 2009: p.58-59). 이로 미루어 운산군에서의 조사는 6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1호분을 조사한 18, 19 양일을 제외하면 운산군에서의 조사는 12일에서 17일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도 계획에 따라 운산군 일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제평동 고분과 용호동 고분을 조사하였을 것이지만, 후술하듯이 제평동 고분은 용호동 고분과 같은 고분군이므로 용호동 고분 조사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8일의 기간은 대형분 조사에 충분한

3) 구로이타 가쓰미는 서해안을 따라 압록강 하구로 가는 교통로상의 유적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1916년에 정주군 일대 조사에서 기록을 남긴 고구려 고분은 관주면의 초장동고분 뿐이다. 사진에 의하면 초장동 고분은 봉토석실분으로 추정된다.

4) 극성동 장성은 구로이타와 야쓰이가 1916년도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자료에 따르면 당시 극성동 장성은 고려 덕종때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

시간은 되지 못하여서 용호동 고분 발굴은 관곽 및 유물 수습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다는 조사 방침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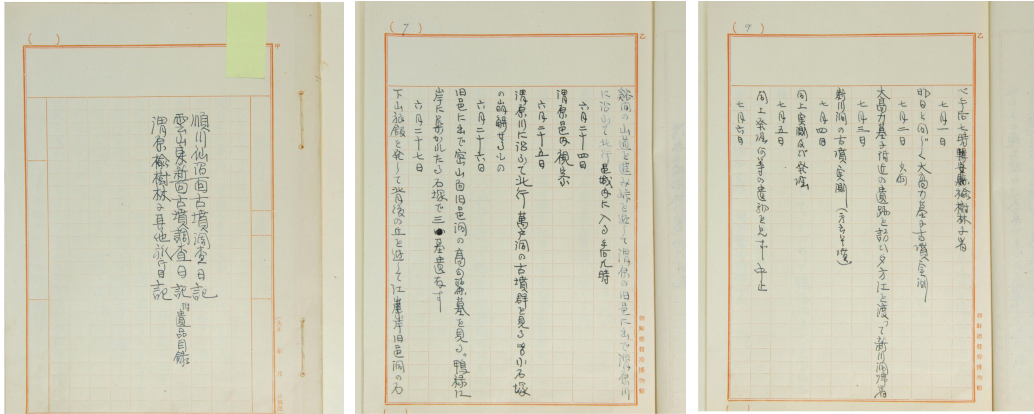


사진 1. 세키노 컬렉션 일부[6월 20일 이후 일기(정인성 2009: p.56)]

## 2. 조사 내용

세키노가 제출한 1917년도의 ‘평안북도 및 만주 고구려 고적조사보고’에 의하면 용호동 고분군은 운산읍에서 동쪽으로 1리반 떨어진 동신면 용호동의 높은 대지에 자리하며, 고분의 남쪽으로 작은 평야가 있다. 고분은 구룡강에 임한 순서대로 1호분과 2호분, 3호분으로 편호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2호분을 衛滿의 무덤이라고 하고, 1호분은 궁녀의 무덤으로, 3호분은 말 무덤 또는 유혼대라고 불렀으나 형상으로 보아 고구려 무덤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지도 2>.

용호동의 세 고분은 제평동(황제참) 고분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평동은 용호리 동남쪽 구룡강 기슭에 있는 별마음로 皇帝站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세키노가 고분 남쪽으로 구룡강에 임한 작은 평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작은 평야가 황제참으로 불렸던 별마음로 추정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제평동 별판은 1219년(고종 6년) 개경에서 퇴군하던 후금의 황제가 격전을 벌이다 전사한 곳으로 여기에 있는 3기의 무덤을 황제묘와 시녀무덤, 말 무덤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sup>5)</sup>. 이러한 상황은 1917년도 세키노의 보고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5) 북한의 지역정보에 의하면 제평동은 용호리 동남쪽 구룡강 기슭에 있는 별마음로 황제참으로 불렸으며, 전설에 의하면 1219년(고종6년), 이 별판에서 개경에서 퇴군하던 후금의 황제가 격전을 벌이다 전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황제묘, 시녀무덤, 말 무덤으로 불렸던 세 기의 무덤

세키노의 1917년에 보고된 사진에 의하면 용호동 1, 2, 3호분을 ‘平安北道雲山郡龍湖洞字帝坪洞’으로 기록되어있어서 제평동 고분군과 용호동 고분군은 같은 고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의 좌상>.

### 1) 용호동 1호분

용호동 1호분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1917년 고적조사보고서에 실린 세키노가 작성한 간략한 보고문과 발굴 상황과 철제 화덕의 출토상황을 기록한 사진 3매이다. 이 외에도 『高句麗時代之遺蹟』에서는 설명문 없이 유구 도면, 발굴 상황 및 출토 유물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 몇 장의 유리건판 사진이 더 있다. 유리건판 사진은 1917년도에 찍은 것과 1925년도 찍은 것이 있는데, 1925년 찍은 사진은 1917년도 사진을 다시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17년도 촬영한 용호동 1호분 사진 중에는 보고되지 않은 내부 상황을 찍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사진 2>, 이 사진은 세키노가 목곽구조로 추정하게 된 구조를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

1917년도의 보고문에 의하면, 용호동 1호분은 커다란 석재를 여러 층으로 쌓은 壇狀의 석총이다. 분구는 붕괴되어 단상은 3층이 남아있고, 상부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자리를 이탈하고 내부에 채워진 냇돌(玉石)들은 드러나 있다. 현실은 붕괴되어 상부에 크고 작은 함몰갱이 있다. 초층 단의 길이는 약 66척(19.98m) 높이 2척 6촌(0.78m)이다. 무덤 앞쪽의 기반이 되는 곳에서 돌무지 정상까지 높이는 9척 내지 15척(2.73~4.55m)이다.

내부의 함몰갱에서 작은 돌을 들어내니 현실 바닥의 저부가 드러났고 현실 바닥은 지면 위에 커다란 할석을 나란히 쌓고 잔돌로 틈새를 메워서 기초를 하였다. 현실 둘레 벽의 형태를 보니 목곽을 가구했을 것으로 보이며, 서쪽은 돌로 양 측벽을 쌓아 흡사 연도처럼 보인다. 양 측벽 길이는 6척 6촌(1.99m)이고,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서 당초 목재로써 연도의 측벽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발굴 중에 현실 내부 및 연도 내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철제 焜爐(화덕)와 다소 파손된 금동판 봉형 4매, 금동투조금구 잔편과 토기 및 유리파편, 철제 못과 꺾쇠, 화살촉 등이 수습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철제 화덕과 봉형 금동장식은 그 양식으로 미루어 1600년 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고구려 고분에서 이러한 부장품이 출토된 것이 매우 진기하다고 평가하였다.

---

은 후금의 무덤으로 생각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cybernk.net/>)



第一面南墳第一第34坪帝宇洞洞能面新東郡山雲道北安平 (號三六一路驛)



사진 2. 용호동 1호분(상: 朝鮮總督府1918: p.522, 좌하: 유리건판 035360, 우하: 유리건판 031024)

‘세키노 컬렉션’에는 용호동 1호분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 의하면 봉형 금동장식은 6월18일 출토되었으며, 철제 화덕도 같은 날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6월 19일 유물의 위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세키노는 20일 운산을 떠났기 때문에 용호동 1호분은 6월 18일과 19일 양일 간의 조사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인성 2009: p.57).

‘1917년 6월 18일: 고분은 원래 기단상의 석층이지만 파괴되어 아래 3층만 남아있다. 고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봉형 장식을 발견했다. 6월 19일: 1호분의 유물 위치를 기록하다’

## 2) 용호동 2호분

2호분은 위만의 무덤 혹은 황제묘로 불렸던 무덤으로 1호분에서 북쪽으로 77척(23.3m) 떨어져 있다. 용호동 2호분에 관한 내용은 1917년도 세키노의 보고문과 천장가구 사진 한 매이고〈사진 3의 좌하〉, 『高句麗時代之遺蹟』에는 도면과 무덤 외형〈사진 3의 좌상〉 그리고 현실에서 연도 쪽으로 찍은 현실 입구〈사진 3의 우〉 사진만 소개되었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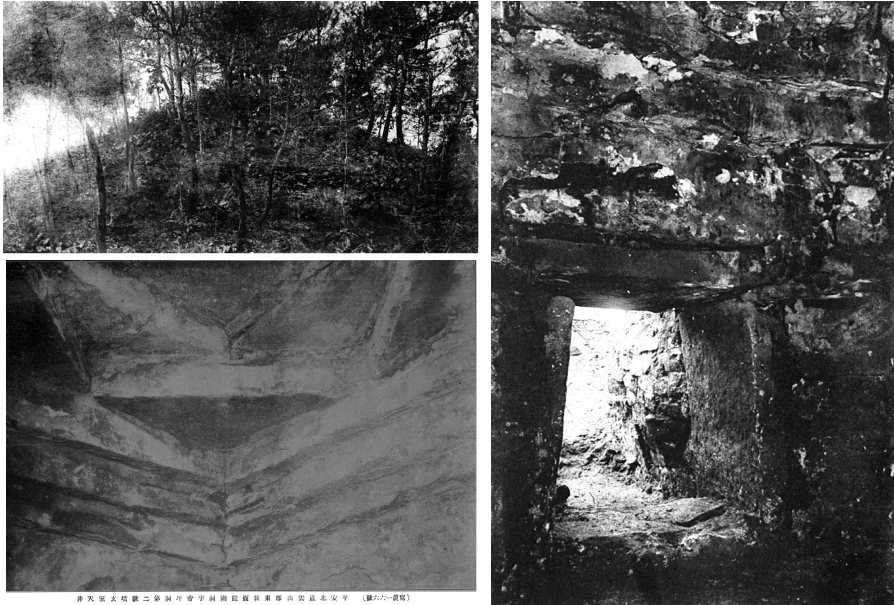


사진 3. 용호동 2호분(좌상: 무덤 외경, 좌하: 현실 천정, 우: 현실 안에서 본 입구)  
(朝鮮總督府 1929: p.93)

세키노는 1917년도 보고서에서 용호동 2호분을 토분으로 보고하였다. 분구는 지름 동서 길이 약 90척(27m), 남북 길이 약 85척(25.7m)의 크기로 1호분보다 크다. 따라서 2호분을 위만 혹은 황제 무덤으로, 가까이 있는 1호분을 궁녀무덤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보면 분구는 끝이 뾰족한 방추형이며, 당시 분구의 상부가 이미 열려있어서 현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도굴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사는 연도를 열고 현실 내에 떨어진 흙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구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길이와 너비 약 11척(3.3m)의 방형 평면이며, 벽은 대소 할석을 평적하였고, 그 위로 평행고임을 3단 하고 다시 그 위에 2단의 삼각고임을 한 후 천정석 한 매를 올려 마감하였다. 현실 벽과 천장에는 백회를 발랐는데, 이는 통상의 고구려시대 고분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백회는 대부분 박리되었다. 연도는 서쪽을 향하여 열려있고, 좌, 우벽 각각 한 매를 세웠으며, 측벽과 천정은 커다란 한 장의 얇은 판돌로써 만들었다. 그 외는 할석으로 측벽을 쌓았으며 좌측 벽만 잔존하고, 천정석과 폐쇄석은 모두 붕괴되어서 구조를 알기 어렵다. 내부에서 부장품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로 다른 형식의 무덤이 가까이 있어서 보고서에서는 석총, 토총 서로 다른 형식이 동시대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3) 용호동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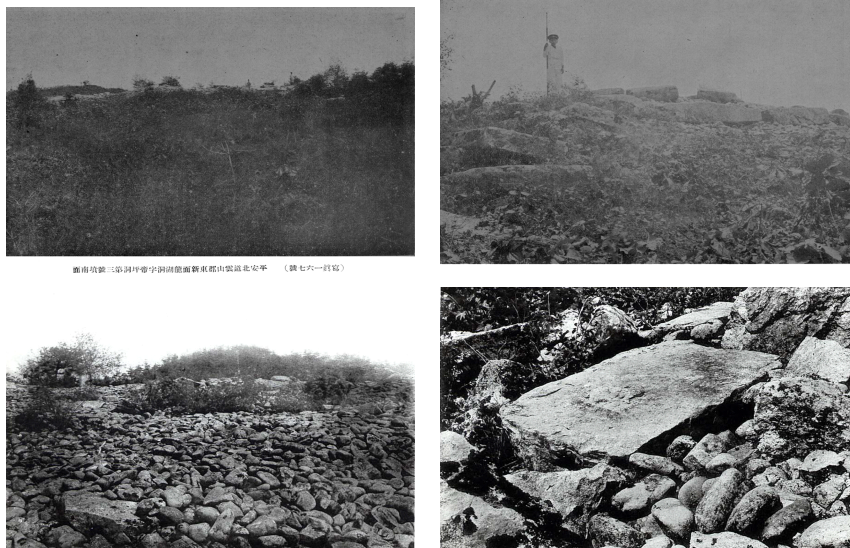


사진 4. 용호동 3호분(상 분구 외형, 좌하: 적석무지. 우하: 내부 노출상황)  
<상: 朝鮮總督府 1918: p.528, 하: 朝鮮總督府 1929: p.96>

용호동 3호분에 대한 기록은 1917년도 고적조사보고서 뿐이다. 『高句麗時代之遺蹟』에 제 시된 세부 사진 2매와 유리건판 사진 한 매가 더 있지만, 유구 노출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이 없어서 정확한 구조 파악은 쉽지 않다(사진 4).

세키노의 1917년도 보고문에 따르면 용호동 3호분은 1호분의 동쪽으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10間(600척, 181m) 떨어진 높은 곳에 자리하며, 1호분과 서로 마주한다고 하였다. 장 대한 규모의 석총으로, 조사 당시 이미 붕괴되어 커다란 돌무지 상태이며(사진 4의 상), 돌 무지 네 면에 壇石이 남아있어서, 단석을 기준으로 하층단은 동서길이 약 98척(29.7m), 남 북길이 68척(20.6m)이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척9촌(2.7m)이다. 보고된 사진(사진 4의 좌하)을 보면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의 계단적석총임을 알 수 있다. 내부에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세 개의 묘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확실하지 않으며, 1호분과 동시기 형식으로 종 래 조선 내지에서 조사된 고구려시대 석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보고하였다.

### 3. 고적 지정과 그 후

1917년도 조사된 용호동 고분군은 1941년에 고적138호로 지정되었다. 고적 지정은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이하 보존회)에서 담당하였다. 보존회는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에 따라 발족된 총독의 자문기관이다. 보존령은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대체한 것으로, 보존회에서는 보존령에 따라 유적, 유물 조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보존회는 1년에 1회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보존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정무총감이 보존회의 회장을 맡아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러나 실질 업무는 학무국에서 주도하였고, 사업의 집행은 학무국 소속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담당하였다. 이런 연유로 용호동 고분 관련 문서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보존령’의 주된 임무는 고적과 유물의 지정이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적의 用地를 조사하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분류된 항목에 따라서 해당 道에서는 고적을 보고하고, 각 道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존회’에서 선별하여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유적, 유물을 다시 각 道에 통지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지정된 유적, 유물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각 道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분류된 유적, 유물에 대해서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구조 형식 및 크기, 상태, 연혁, 보존상 필요사항과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의 항목을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존회에서는 지정대장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총독이 보존회에 자문을 구하여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최종적으로 朝鮮總督府官報에 공표된다.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게시된 목록이 고시됨으로써 지정이 마무리된다. 지정과 관련하여 ‘보존회’는 1934년부터 1943년까지 12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마지막 공시는 1943년 12월 30일자 관보 제1511호이다. 관보에 따르면 보물은 제419호, 고적은 제145호, 천연기념물은 146호까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산 용호동 고분군의 지정은 1941년 10월 2일 제6회 보존회 총회에서 진행되었고, 고적 138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의안은 ‘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이었고, 고적 지정 목록에 따르면 운산 용호동 고분군 고적138호로 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사진 5의 하>.



- 고적 명칭: 운산용호동고분군,
- 소재지 평안북도 운산군 동신면 용호동,
- 소재지역 및 토지 소유자: 용호동산5, 국유지 임야 1反(300평)4畝(120평)  
용호동산7 국유지 임야 1反(300평)8畝(240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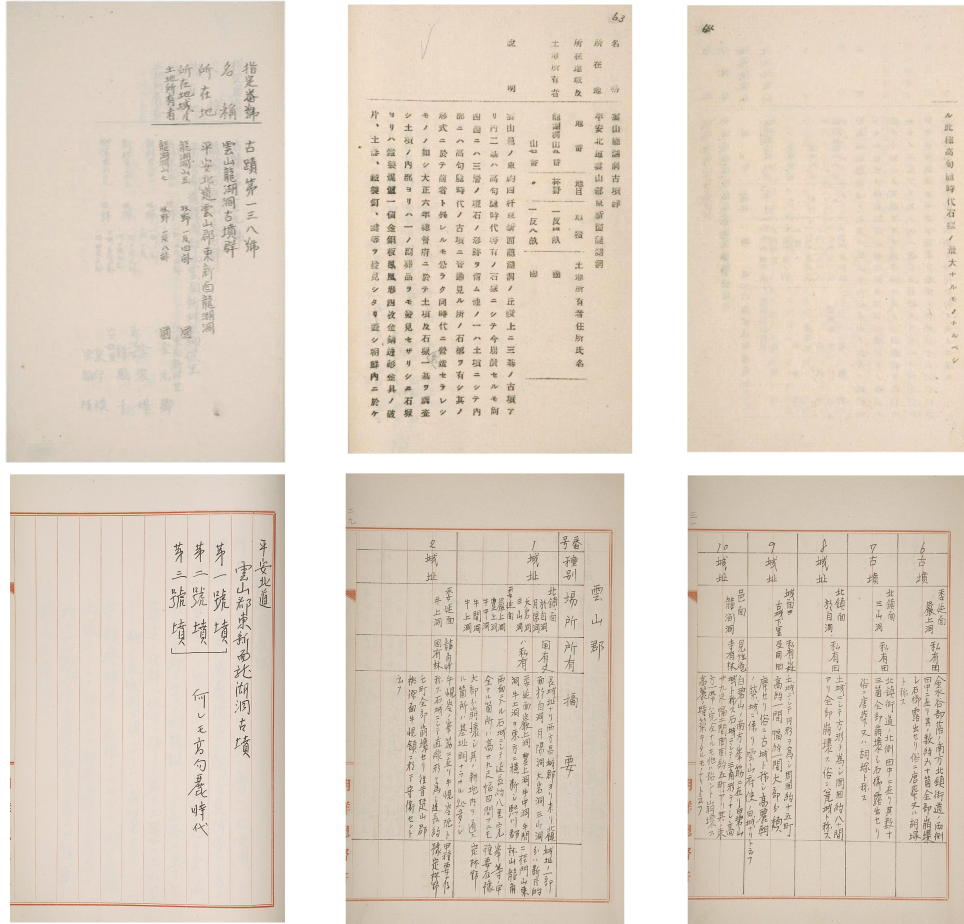


사진 5. 고적지정보고서(상)와 고적대장(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97-지정27)>

보존회에 제출된 보고된 내용은 1917년도 세키노의 보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작성된 지정 보고 내용을 보면<사진 5의 상>, ‘용호동 고분군은 운산읍의 동쪽으로 4米千(km) 떨어진 동신면 용호동 구릉 상에 있는 3기의 고분으로, 그 중 2기는 고구려시대의 특유한 석총으로서 현재 붕괴되어서 네 면에 삼층 壇石의 형적을 남기고 있으며, 나머지 1기는 토분으로 내부에는 고구려시대의 고분에서 통상 발견되는 석곽이 있다.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동시대로 추정된다. 大正6년도 총독부에서 토분 및 석총 각 1기를 조사하였고, 토분 내부에서 부장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지만, 석총에서는 철제 焔爐 한 개와 금동관봉황형 4매, 금동투조금구 파편, 토기, 철제 못과 鎚 등을 발견하였다. 조선 내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석총 중 가장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용호동 고분군은 철제 화덕과 금동 봉황형 장식 등 출토된 유물 뿐 아니라 조선 내에서 발견된 석총 중 가장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1941년 고적 138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용호동 고분군은 준국보급(보존급)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766호로 지정되어있다. 북한에서 1946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존령'을 제정하고 고적을 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왔다. 해방 후 조사된 안악3호분이 국보급 제67호이고, 1980년대 조사된 장수산성이 보존급 제243호로 지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운산 용호동 고분군이 제766호 인 것은 용호동 고분군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용호동 고분군에 대한 추가 조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용호동 고분군은 기단돌각담무덤, 돌칸돌무덤, 돌칸흙무덤으로 이루어졌으며, 1호 무덤은 가장 큰 기단돌각담무덤으로 한번 길이 20m이며, 꺾쇠가 심하게 파괴되어서 매장품 대부분이 실종되었고, 봉황새 장식품 4개, 철제 곤로, 쇠활촉, 꺾쇠, 관못, 질그릇이 출토되었다. 3호 무덤은 돌칸돌무덤으로 동서길이 31m, 남북길이 21m 되는 5단 가량의 단으로 쌓은 무덤무지로, 하나의 무덤 무지 안에 3개의 돌칸이 있다. 2호 무덤은 돌칸흙무덤으로 한번 길이 26-28m의 방대형 무덤무지로, 돌칸은 평행삼각고임 천장이며 벽과 천정에 회미장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세키노가 쓴 1917년도의 보고문과 대동소이하다. 세키노는 3호분의 매장부가 3개라고 하였는데, 이를 3개의 돌칸으로 북한에서 설명한 것은 북한에서의 추가 조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Ⅲ. 용호동 고분 검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용호동 2호분에 대한 세키노와 북한의 기록은 같지만, 1호분과 3호분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고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용호동 고분의 시기를 비정하고 용호동 고분이 가지는 고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분의 구조

용호동에서 조사된 3기의 무덤은 구룡강가의 평탄한 대지에 2기, 연결되는 기슭에 1기가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1917년도 보고서의 설명을 구글지도에 대입시켜보면 평지 가까이 있는 1호분, 그리고 1호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약 23m 거리에 2호분, 1분의 동편으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근 200m 떨어져서 마주하는 3호분을 찾을 수 있다<사진 6>. 현재도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운산군 용호동 일대 유적 자료에 의하면 용호동 골짜기에 돌각담 무덤이 여러 군데 널려있다고 한다. 용호동 일대는 구룡성 산지와 충적지로 되어있고, 북쪽과 북서쪽이 높고, 남쪽과 남동쪽이 낮아지는 지세이다. 구룡강을 끼고 넓은 충적지가 황제참으로 불렸을 것이므로, 고분은 충적지에서 구룡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용호동 3호분이 자리하는 구룡지가 돌각담이 널려있다는 용호동 골짜기일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진 6. 용호동 고분 배치 현황

### 1) 적석총

1917년도 작성된 고적조사보고서와 1929년 발간된 『高句麗時代之遺蹟』,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용호동 1호분과 용호동3호분은 계단상 적석총이다<그림 1>.

용호동 1호분의 분구는 사진에서도 커다란 장대석재가 횡적되어 있어서 계단적석총임을 알 수 있다. 적석분구는 상부가 파괴되어 3단이 남아있으며, 매장부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

로 이루어 원래는 5층 정도의 계단적석총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 축조에 사용된 장대석재의 크기는 같이 찍힌 사람과 당시의 남자 평균키가 161-163cm 임을 감안해볼 때 한번 길이 1.5m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장대석재는 부분 가공하였고,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면 잘 가공된 석재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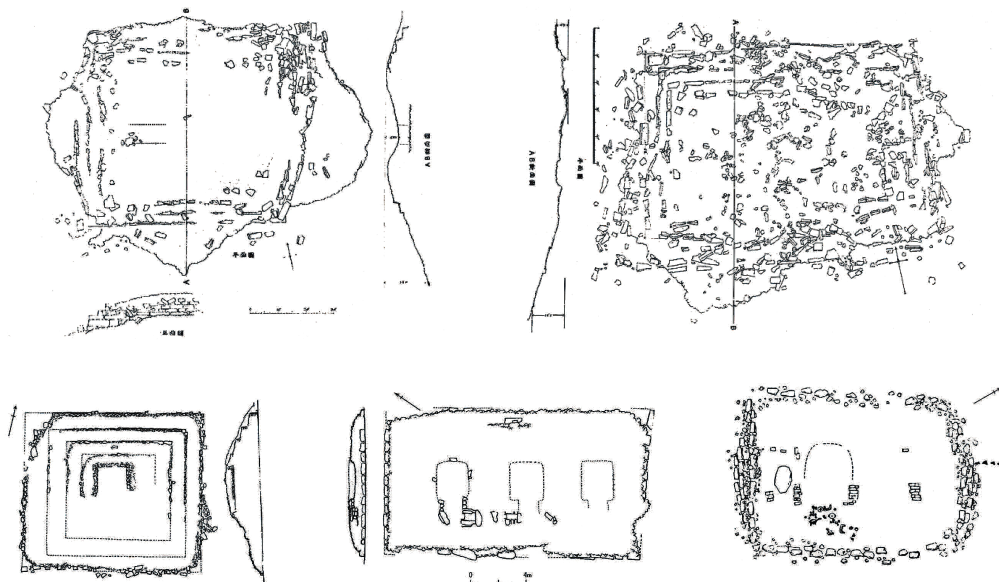


그림 1. 상: 용호동 1호, 3호분(朝鮮總督府 1929: p.86, 94)

하: 우산하3283호, 2891호, 칠성산 1096호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2009: p.49, 202, 204)

매장부는 『高句麗時代之遺蹟』 사진 427에서는 석곽으로 표현되었고, 북한에서는 광실로 표현하였다. 1917년도 찍은 유리건판 사진에 의하면 석곽으로 보기 어렵다. 상당 높이의 비교적 정연한 석축렬이 확인되는데, 이 석축렬은 인부가 있는 방향으로 꺾이어 열려있고, 그 사이에 판상의 긴 석재가 뒹어있다(사진 2의 우하). 이 부분은 현실과 연도가 만나는 곳으로, 판상 석재가 현실 입구의 폐쇄석 역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이 세키노가 목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서쪽으로 연도 같다고 한 지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장부는 횡구식 구조의 목실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구조를 중국학자들은 광실로 부른다.

실제 내부 작업 광경 사진을 보면, 크고 작은 냇돌이 있으며, 큰 냇돌은 20-30cm 정도 크기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국 통구 분지의 서대총과 유사하다.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 관못, 꺾쇠, 장막걸이쇠 등이 포함되었고(사진 8), 철제 화덕과 금동제 봉황장식이 출토된

지점이 현실과 연도로 추정된다는 점은 중국 통구분지의 만보정1078호분이나 칠성산1096호분의 부장품 출토양상과도 유사하다<sup>6)</sup>.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용호동 1호분은 1단의 한번 길이 21.78m이고 높이는 0.78m인 대형의 목실계단적석총에 해당된다. 한번 길이 20m를 넘는 적석총은 통구 분지에서도 대형분에 해당되며, 기단석재와 잔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서대총이나 마선구2100호분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용호동 3호분은 세키노는 석총으로, 북한에서는 돌간돌무덤으로 파악하였다. 『高句麗時代之遺蹟』 도면(94쪽 도439), 사진(95쪽 도441)에 의하면 분구는 1호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축조된 계단적석총으로 추정된다. 분구는 동서 길이 29.7m, 남북 길이 20.6m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분이다. 매장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장방형 평면의 분구로 미루어 다인합장 무덤임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사진 7. 용호동 3호분 세부사진(유리건판031017)

서 북한의 견해대로 3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장부는 당시 조사 사진에서 천장 가구에 사용되었거나 석실 축조에 사용되었을만한 석재가 보이지 않아서 매장부는 석실보다는 목곽이나 목실로 추정된다.

다만, 1917년도 세키노가 찍은 용호동 3호분 세부 사진 중에 제자리를 잃은 석재 잔편이 있는데 치석된 것이 마치 관상의 다리처럼 보여서<사진 7>, 목실 내에서의 이러한 석재 관상의 유례가 확실하지 않아서 목개석실일 개연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용호동 3호분은 목실의 동분이혈합장 계단적석총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러하다면 통구 분지의 칠성산1096호분과 우산하2891호분에 비견된다. 칠성산1096호분과 우산하2891호분은 장방형 평면의 계단적석총으로 횡혈식 구조 매장부를 가진 동분 내 이혈합장의 다장무덤이다.

6) 만보정1078호분은 그동안 만보정78호분으로, 칠성산1096호분은 칠성산96호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고분이다. 1997년도 통구분지의 고분 분포조사에서 고분 번호를 정리하여 현재는 만보정1078호분, 칠성산1096호분으로 편호되었다.

## 2) 봉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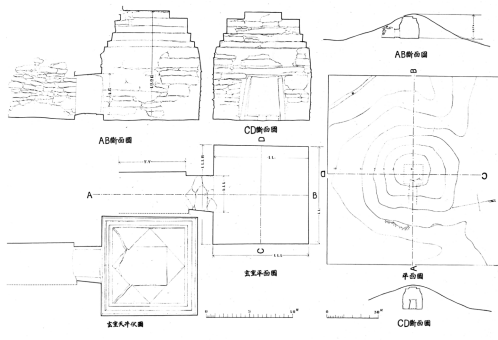


그림 2. 용호동 2호분(朝鮮總督府 1929: p.92)

용호동 2호분은 위만무덤 또는 후금 황제 묘로 불렸던 봉토석실분이다. 분구는 방추형이며, 분구는 동서길이 29m, 남북길이 25.8m에 달한다. 분구 가운데 매장부가 위치하는 지상식의 분묘일체형 무덤으로, 매장부는 방형 현실의 중앙연도를 가진 횡혈식 석실이다 <그림 2>. 현실은 한번 길이 3.3m의 방형이며, 3단평행고임 위에 2단의 삼각고임을 하고 한매의 돌로 천장을 막았다. 현실은 장대석을 뉘어서 쌓아 올렸으며 벽에 회칠을 하였다. 현문은 장대석을 세워 문주를 하였고, 문주석 위에 거대한 장대석을 뉘어서 문미석을 하였을 것이다. 문길은 0.9m 정도이고 밖으로 연도와 연결되며, 연도는 길이 2.4m 정도이다. 연도는 현실에 비해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생활풍속도 계열 벽화분인 안악 1호분과 안악 2호분 외에도 사진이 그려진 내리 1호분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검토한 결과를 일제강점기와 북한에서의 기록과 결부시켜 용호동 고분군의 구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용호동 고분군 구조

	일제강점기	북한	검토
용호동 1호분	석총 / 목곽(1917년), 석곽(고적지정보고)	기단돌각담무덤, 광실	목실계단적석총
용호동 2호분	토분	돌칸흙무덤	석실봉토분
용호동 3호분	석총	돌칸돌무덤	계단적석총(동분다인합장)

## 2. 용호동 1호분 출토 유물

### 1) 철제 화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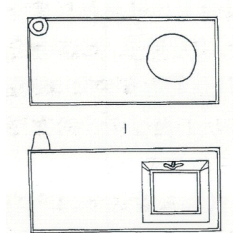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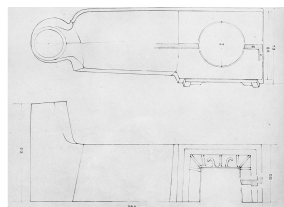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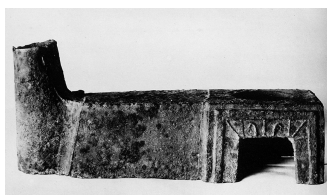
현존하는 고구려 유물 가운데 철제 화덕은 용호동 1호분에서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 발굴 당시의 출토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철제 화덕은 정치된 채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봉황 장식 금동판과 토기, 유리 편 등의 출토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실 내부 및 연도 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현실 입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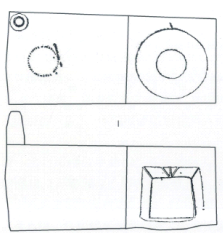
연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추정된다. 현실 입구나 연도의 현실쪽 부근은 고구려 석실에서 부장품이 주로 확인되는 곳이기도 하다. 만보정1078호분이나 칠성산1096호분 외에도 집석공로 간에서 조사된 다수의 고구려 고분에서 부장품의 출토지점이 현실 입구나 연도근처이다.

철제 화덕은 장방체의 화덕 전면의 오른쪽으로 화구가 있고, 여기에서 ㄱ자상으로 꺾어져 화구의 반대편에 원통형의 굴뚝이 붙어있다. 전체 길이는 길이 67.2cm, 너비 23cm 높이 29.1cm이다. 화덕 본체는 장방체로, 화구 부분과 몸체를 십자상으로 4분할하여 주조하였다. 본체를 합체하고, 별도로 주조된 굴뚝을 본체에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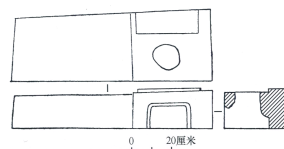
화구부는 전체 저부 길이 24cm, 상부 길이 23.5cm로 상부가 조금 좁아졌으며, 너비는 23cm이다. 화구는 장방형으로 구멍은 바닥까지 뚫려있다. 화구부를 돌아가는 테두리는 폭 1.5cm로 돌출되었고, 돌출된 테두리의 외연과 화구의 내구 사이 상부에 초문을 장식하였다. 화구부 상면에 술이나 기물을 얹어 놓을 수 있도록 원형 구멍을 내었다. 구멍은 지름 13cm 정도이고, 상면 두께는 1cm이다. 화구에서 이어져 불이 지나가는 불길의 길이는 29cm이며, 불길은 굴뚝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져서 굴뚝과 연결된다. 굴뚝은 높이 28cm이고, 위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져서 화덕 몸체와 연결된 부분은 지름 14cm이고 굴뚝 상부 지름은 10.5cm이다.



삼실총



장천1호분



만보정1368호분

그림 3. 용호동1호분(상)과 고구려고분출토(하) 철제 화덕

(상: 朝鮮總督府1929; p.88-89, 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2009; p.58, 95, 124)

이와 같은 철제 화덕은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시유도기 화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그림 3).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시유 화덕은 장천 2호분과 삼실총에서 보고되었고,

이외에도 만보정 1078호분 부장 화덕과 교토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집안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화덕이 있다. 만보정 1078호분은 계단적석총이며, 나머지는 모두 봉토석실분에서 출토되었다. 장방체 몸체의 화구와 화구에서 ㄱ자상으로 꺾어져 굴뚝이 있는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크기는 장천 2호분은 길이 76.5cm, 폭 34cm, 높이 30cm이고, 삼실총의 것은 길이 45.6cm, 폭 24cm, 높이 22.2cm로 이 두 무덤의 화덕은 크기는 다르지만 전체 형태와 화구부 무늬는 매우 유사하다. 용호동 1호분의 화구의 상부 둘레에 양각된 초화무늬도 장천 2호분이나 삼실총의 화덕과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다만, 용호동 1호분의 철제 화덕은 몸체가 세장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용호동 1호분 화덕과 유사한 형태의 화덕으로는 만보정 1368호분에서 출토된 석제 화덕이 있다. 만보정 1368호분의 화덕의 자세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길이는 용호동 1호분 화덕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용호동 1호분의 철제 화덕의 형태는 만보정 1368호분과 장천 2호분 화덕 사이로 위치시킬 수 있어서 용호동 1호분의 시간 위치도 그 사이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만보정 1368호분은 4세기 중엽으로, 장천 2호분을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므로 용호동 1호분의 연대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사이로 비정된다.

## 2) 금동 봉황형 장식

금동제 봉황형 장식은 철제 화덕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 점이 출토되었으며, 한 점의 크고, 나머지 세 점은 조금 작다. 작은 세 점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형태는 크기와 관계없이 서로 비슷하다. 전체 형태는 머리에 끝이 뾰족해진 심엽형 솜을 장식이 있고, 꼬리 부분이 크게 펼쳐진 채 뻗어 올라가서 날아갈 듯 한 자세이다. 부리는 벌려있고, 부리 끝부분이 살짝 아래쪽으로 쳐져있고, 턱 아래 부분에 작은 돌기가 있다. 목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역 S자상으로 크게 만곡 되어있다.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날개를 부착한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꼬리의 끝은 3중의 호선으로 표현되었다. 두 다리는 곧게 뻗었고, 두 다리는 상부에 돌기가 표현되어서 윗다리와 아랫다리의 구분을 표현하였다. 발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부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못 구멍이 하나씩 남아있다.

동판을 잘라 만든 후 금을 입힌 것으로, 큰 것은 길이 15cm, 전체 높이 19.1cm이고, 날개 끝 부분은 길이 8cm이다. 작은 것은 길이 12.7cm, 전체 높이는 13.1cm이다. 날개 길이는 6cm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장식구는 아직 유례가 없어서 그 용도를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봉황 장식은 집안 마선구 2100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마선구



2100호분에서는 금동제 봉황장식 2점이 보고되었다. 크기는 한 점은 길이 3.6cm, 잔존 높이 4cm이고, 다른 한 점은 잔존길이 2.9cm, 잔존 높이는 4.3cm로 용호동 1호분 봉황장식보다 작다. 봉황장식 외에도 마선구 2100호분에서는 금동제 말 장식이 출토되었다. 길이 8.5cm, 잔존 높이 5.8cm로 용호동 1호분의 봉황장식과 비슷한 크기이다. 중국에서는 이 두 장식을 모두 冠飾으로 추정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5, p.151-152).

이 외에도 우산하 992호분에서는 용호동 고분 봉황장식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용도 비상의 장식편이 있다. 크기와 모양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용호동 1호분의 것은 冠飾으로는 보기 곤란하고, 목실이나 다른 유물을 꾸몄던 장식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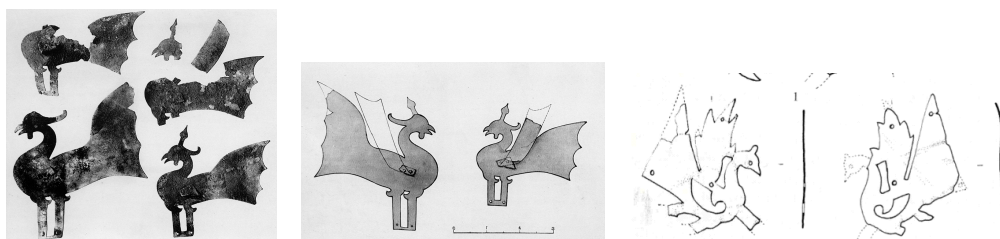


그림 4. 금동 봉황형 장식<용호동1호분(朝鮮總督府1929: p.90)과 마선구 2100호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p.152)>

### 3) 기타 유물

철제 화덕과 금동 봉황형 장식은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 상설전시 되어있으나,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는 금동투조 장식과 유리편, 철제 관못과 꺾쇠, 장막걸이쇠, 화살촉 등은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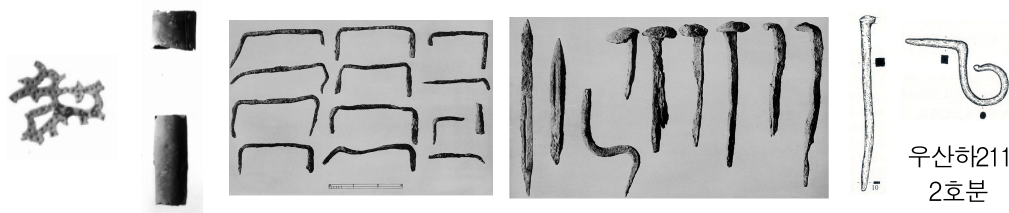


사진 8. 용호동 1호분 출토 금동투조장식, 용도불명, 꺾쇠, 관못과 장막걸이쇠(朝鮮總督府1929: p.90-91)

1925년도의 유리건판 사진에 의하면 금동투조 장식판은 3cm 남짓한 크기의 작은 편으로 원래 모습은 추정할 수 없지만, 변형된 용문의 일부로 보인다. 투조된 장식 마구의 잔편일

가능성도 있고, 장식구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세공기술은 고구려 고분 금공품에서 자주 관찰되는 기법이다.

철제 관못과 꺾쇠, 그리고 장막걸이쇠도 출토되어서 용호동 1호분의 매장부가 목실이였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유리편이나 토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유물이 수집되었다고 하나, 관련 기록은 물론, 사진이 없으며 그 소재도 알 수 없다. 다만, 유리건판에 봉황형 장식과 함께 찍힌 분리된 원통형도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17년도 보고문에 鉢柄具가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 3. 고분의 연대

용호동 고분군의 조영시기를 판단할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1917년 보고서나 고적지정 보고문에서도 고구려 시대로 파악하였을 뿐 구체적인 시기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선후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석총(적석총)과 토분(봉토분)이 함께 군을 이루며 병존하는 것을 매우 진기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구려 고분이 적석에서 토분으로 변화한다는 당시의 단선 진화론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 조사의 증가에 따라서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변화는 점진적이고 계기적이었으며, 일정 기간 두 묘제가 상존하였음은 밝혀졌으므로(강현숙 2013), 예외적이거나 진기한 상황은 아니다.

용호동 고분군의 조영 시기에 대해서는 구조와 출토 유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에서 두 묘제가 병존한 시기는 4, 5세기대이다. 적석총은 6세기 이후가 되면 압록강 유역의 일부지역에서 소형분으로 자리하지만, 왕도에서 대형의 적석총은 더 이상 축조되지 않는다. 반면, 새로 편입된 확대된 고구려 영역에서는 봉토석실분이 축조된다.

4, 5세기대에 병존하는 적석총과 봉토분 두 묘제의 공통점은 횡혈식 장법이다. 일찍부터 적석총이 축조되었던 압록강유역에서 수혈식 장법의 적석총은 3세기 말경이 되면 횡혈식 장법을 받아들여서 횡혈식 구조의 木室, 木蓋石室을 거쳐 石室로 변화하며, 천장까지 잘 완비된 석실은 4세기 말경에 완성된다. 압록강 유역과 달리 적석총이 축조되지 않았던 서북한 일대에서는 낙랑. 대방군의 축출을 즈음하면서 차츰 횡혈식 구조의 벽돌무덤이 석실분으로 바뀌면서 4세기 중엽경이 되면 대형분은 벽화분의 형태로 서북한 각지에서 축조된다.

고구려 고분의 이러한 전개과정을 고려해 볼 때 횡혈식의 목실구조로 추정되는 용호동 1

호분은 4세기 말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인합장의 용호동 3호분은 棺床으로 추정되는 석재로 미루어〈사진 7〉 목실일 가능성이 크며, 대형 적석총에서 다인합장은 4세기 중엽경부터 관찰되어서 용호동 1호분과 비슷하거나 1호분보다는 조금 앞설 가능성이 있다. 용호동 2호분은 용호동 고분군 중 가장 늦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호분은 천장까지 잘 완비된 석실이며, 지상식 구조라는 점에서 지하나 반지하식의 낙랑, 대방군 고지의 봉토석실분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용호동 2호분은 4세기말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용호동 고분군 중 가장 먼저 조성된 것은 용호동 3호분이며, 이어 용호동 1호분, 용호동 2호분 순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용호동 1호분의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선 용호동 1호분 출토 철제 화덕은 형태적으로 볼 때 만보정 1368호분의 석제 화덕보다는 늦고, 장천 2호분의 시유토기 화덕보다는 앞설 것이다. 만보정 1368호분은 4세기 중엽경으로, 장천 2호분은 5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므로 용호동 1호분의 철제 화덕은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전반 사이의 어느 기간으로 비정해볼 수 있다. 금동 봉황형 장식은 고구려 고분에서 유례가 없지만, 형태와 제작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은 마선구 2100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마선구 2100호분은 무덤의 구조와 권운문 와당의 형식 편년에 의하면 천추총보다 앞설 것으로 보아서 대개 4세기 후반경으로 비정된다. 마선구 2100호분은 목실로 추정되는 매장부를 가진 초대형적석총이므로 철제 화덕은 4세기 말경으로 비정된다.

결국 구조와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용호동 1호분은 4세기 말경으로, 이보다 조금 앞선 용호동 3호분은 4세기 후반 직후쯤으로 비정되며, 용호동 2호분은 5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용호동 고분군은 4세기 후반이후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 4. 고분군 조영의 의미

제한된 자료로 앞에서 용호동 고분 개개의 조영 시기는 잠정적인 연대관이지만, 용호동 고분군이 조영된 시기는 4세기 후반 직후부터 5세기 전반 사이의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은 소수림왕에서 장수왕대에 걸친 시기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율령반포 등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집권체제가 완비되고 영역 확장에 성공한 시기이다. 그러한 고구려의 모습은 왕도에서 지방 각지로 나아가는 교통로 상의 거점지에 성곽이 자리하거나 대형분의 축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대형분은 선행 묘제가 적석총인 지역에서는 횡혈식 매장부를 가진 초대형 적석총의 형태로, 선행묘제가 적석총이 아닌 서북한 일대에서는 봉토석실벽화분의 형태로 자리한다. 국내도성의 압록강 대안인 만포, 초산, 위원 등지에서는 만포 문악리 1호분(대총), 위원 사장리 무덤 등과 같이 대형 적석총이 축조되지만, 선행 묘제가 적석총이 아닌 서북한 일대 각지에서는 생활풍속도계열의 봉토석실벽화분이 축조된다. 운산 용호동의 초대형에 해당되는 3기의 고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운산 용호동은 국내 도성에서 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교통로상의 경유지에 해당된다. 4세기대 국내도성에서 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은 내륙의 육로를 경유하거나 압록강 하류로 내려와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두 가지 길이 상정된다. 압록강 하류역 양안에 4세기대의 대형분이 자리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서해안로 보다는 내륙의 육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도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만포에 이르고, 만포에서 초산으로 내려와서 강계를 거쳐 운산, 영변, 순천, 평성을 경유한 내륙로를 이용하여 평양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길은 1917년 세키노가 압록강 양안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할 때도 이용했던 길이다. 세키노는 운산 용호동에서 운산 계곡을 따라 위연면의 극성동 장성을 보고 판묘령을 넘어 위원천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서 위원 만호동 고분과 사장리 적석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원에서 초산에 이르러 신천동 고분을 조사하고 압록강을 건넜다. 압록강을 건너 세키노 일행은 집안의 유수림하의 고령묘자 고분을 조사한 후 다시 압록강을 건너 초산에 이르렀고, 초산 일대의 고구려 고분과 만포의 고분을 조사하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집안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압록강을 건너 갔다 왔다 하면서 집안 일대와 초산, 만포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내도성에서 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륙 교통로는 운산을 경유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 길을 거쳐 광개토왕이 392년에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을 것이며, 신라를 돕기 위한 광개토왕의 5만 步騎도 이 길을 거쳐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 천도로 서해안로가 개척되면서 국내 도성과 평양 도성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로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내륙 교통로의 주요 경유지로서 운산 일대가 가지는 역할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운산 용호동 고분군에서 용호동 2호분 이후로 비정되는 대형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성곽은 물론 용호동 주변에 상당 규모의 인구 집단이 상정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물론, 운산 위연면의 극성동 장성은 추후 조사에 따라 고구려 시대의 성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고려시대 요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운산 일대의 방어를 위한 방어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평양 천도

후 내륙 교통로보다 서해안 교통로가 보다 활발히 이용됨에 따라서 운산 용호동 일대가 지방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상정된다.

## IV. 맺음말

고구려 고분 연구의 주된 대상은 왕도와 그 주변의 고분이다 보니, 지방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구려 고고학은 왕도의 고고학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왕도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지방의 고분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지방의 대형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호동 고분군이 자리한 평안북도 운산군일대는 국내 도성과 평양 도성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로에서 꼭 거쳐야 할 경유지이다. 운산 용호동 고분군은 평안북도 내륙에서 조사된 초대형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이 자리하는 유일한 고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에서는 빗겨나 있었다. 용호동 고분군에 대한 일제강점기 기록을 취합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바가 이에 있다.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조사 자료와 조사 후 고적지정 그리고 북한에서의 관리 상황을 정리하고,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검토함으로써 용호동 고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무덤 형식은 용호동 1호분과 3호분은 계단적석총이며, 보고문에 따르자면 용호동 3호분은 매장부 3기가 분구를 공유하는 동분내이혈합장의 다장분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용호동 2호분은 방형 현실, 중앙 연도의 단칸구조 석실봉토분이다. 출토유물은 용호동 1호분에서 철제 화덕과 봉황형 금동 장식이 보고되었고, 이를 고구려 고분 유물과 비교하여 용호동 1호분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 사이의 기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용호동 1호분과 무덤 구조를 기준으로 용호동 3호분은 4세기 후반 직후로, 용호동 2호분은 5세기 전반으로 비정하였고, 용호동 고분군의 조영 시기를 4세기 후반 직후에서부터 5세기 전반경 사이로 비정해보았다.

4세기 후반직후에서 5세기 전반 사이의 고구려는 울령반포 등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였던 시기이자 국내 도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용호동 고분군을 통하여 운산 일대는 국내 도성에서 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교통로 상의 주요 지방 거점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운산 일대에서 5세기 후반 이후로 비정되는 대형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륙 교통의 요지로서 운산 용호동 일

대가 가지는 지방 도시로서의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보았고, 이는 평양 천도 이후 서해안로가 개척되고 활발히 이용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였다.

글에서는 운산 용호동 고분 자료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여서 용호동 고분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구체적을 설명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굳이 이 글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제강점기에 단편적으로 조사된 고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 고분으로 연구 관심의 확대에 두고, 이를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은 2019년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의 객원연구원으로서 일제강점기 고구려 고분 조사 자료 연구의 결과이다. 고고역사부원의 도움과 배려로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참고문헌

강현숙, 2013, 고구려고분연구, 진인진

정인성, 2009,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朝鮮總督府, 1917, 大正5年度 古蹟調査報告

\_\_\_\_\_, 1918, 大正6年度 古蹟調査報告

\_\_\_\_\_, 1929(昭和4),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上冊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japanese\\_gov\\_gen\\_korea](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japanese_gov_gen_korea))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書

【Abstract】

Reconsider of the Koguryo Tombs, Yongho-dong Unsan, Pyeongbuk  
province surveyed in Japanese colonial era

Kang HyunSook\*

The tombs of Yongho-dong, Unsan, Pyeongbuk province is the represent large tombs located in local. and Yongho-dong is a major stopover for the inland transportation route connecting the Kugnae and Pyeongyang capital city of Koguryo, On these two points, in this paper it was introduced and reviewed the documents about the Yongho-dong tombs which was published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tombs of Yongho-dong were constructed from the end of the 4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5th century, when Koguryo succeeded in expanding its territory based on its strong royal authority, and it was a time when was preparing to move the capital city to Pyeongyang. So it suggest that the large tombs of Yongho-dong show that Yongho-dong, Unsan was the major local city. Therefore the Koguryo tombs of Yongho-dong show the importance of studying local tombs.

Key words : Yongho-dong Unsan, Pyeongbuk, stone mounded tomb,  
earthen mounded tomb, Koguryo Tombs

---

\* Dongguk Univ.